

LGD, 광저우 OLED공장 5兆 투자... 내년 하반기 양산

〈LG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



중 정부로부터 합작법인 승인 받아 대형TV OLED 월 9만장 생산 가능 국내 장비·소재 등 협력사 수혜 전망 “글로벌 디스플레이 지속 선도 기대”



대형 OLED TV 제품 이미지.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광저우 OLED공장 조감도.

LG디스플레이

스플레이가 대형 OLED 패널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2019년 400만대의 OLED TV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0년 800대에서 2021년에는 1000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서의 판매량 상승은 독보적이다.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OLED TV 증가 속도가 100% 넘는 지역이다. IHS는 2018년 2분기부터 중국 OLED TV 판매량이 고속성장기에 접어들어 3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1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LED TV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TV업체들이 OLED 진영에 속속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LG 전자를 시작으로 중국의 스카이위스, 콩카, 창홍, 일본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유럽의 필립스, 그룬디, 뢰베, 매츠, 베스텔, 뱅앤올룹슨(B&O) 등 유수의 업체가 OLED TV를 생산하고 있다. 2018년에는 중국의 하이센스가 합류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디스플레이 광저우 OLED 패널 공장 설립이 승인됨에 따라 국내 주요 협력사에 대한 장비 발주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내 장비·소재·부품업체의 경우 수조 원대의 매출 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G디스플레이측은 설명했다.

〈김유진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광저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합작법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대형 OLED TV 수요가 넘쳐나는 중국에서 OLED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광저우 OLED 합작법인에 대한 경영자집중신고 비준서를 수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저우 OLED 법인은 LG디스플레이와 광저우개발구가 각각 70:30의 비율로 투자한 합작사다. 자본금 2조6000억원을 비롯해 총 투자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한다. 현재 8.5세대(2200×2500) OLED 생산공장을 건설 중으로, 2019년 하반기 양산 예정이다.

광저우 OLED 공장이 완공되면 대형 TV용 OLED를 주력으로 생산하게 된다. LG디스플레이는 월 6만장(유리원판

투입 기준) 생산을 시작으로 최대 월 9만장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파주 E3, E4 공장에서 생산중인 월 7만장 규모를 감안, 2019년 하반기에는 총 월 13만장이 돼 연간 1000만대(55인치 생산기준) 제품 출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중국 정부의 승인 결정을 환영하며 8.5세대 OLED 공장 건설 및 양산 노후를 총동원해 최대한 일정을 단축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OLED로의 사업구조 전환을 가속화 함으로써 LG디스플레이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OLED 세계 시장 제패...광저우 OLED 공장으로 탄력

현재 유일하게 OLED TV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사업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OLED를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선정,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OLED의 기술적 장점과 혁신적 디자인 가능성을 토대로 OLED를 통해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OLED의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한국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양산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광저우 OLED 공장 설립을 계기로 OLED로 경쟁사들과 격차를 확실히 벌릴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개발부터 생산·판매까지 완결형 체제 구축, 이를 바탕으로 LCD에서 10년 걸리던 ‘골든 수율’을 3년 만에 달성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 같은 노하우를 광저우 OLED 공장에도 접목시켜 빠른 시일 내에 최대 양산 체제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편 LG디스플레이의 생산성은 지난 2013년 기준 20만대에 불과, 2017년에는 170만대를 돌파했다. 올해에는 3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대형 OLED 판매량 증가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올해 하반기 대형 OLED 사업에서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확대되는 OLED 진영...중 하이센스, OLED TV 판매 초입기

광저우 OLED 공장이 가동하면 LG디

IT 기업, ‘엔터 콘텐츠’로 글로벌 정조준

네이버 베트남서 한류 콘텐츠 제작 카카오 카카오엠-매니지먼트 협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상사업을 강화하며 엔터테인먼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글로벌 동영상 라이브 서비스인 ‘브이라이브’를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다변화 실험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라이브를 기반으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플랫폼으로의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브이라이브는 베트남에서 뮤직, 웹드라마, 뷰티쇼, 연예정보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유통 등을 다양하게 실험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손잡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브이라이브는 베트남의 첫 공식 음원 차트인 ‘V HEARTBEAT’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뮤직차트 플랫폼 운영 경험을 베트남에 전수하고, 서비스 개발과 운영

에 대한 투자를 담당했다. 이를 기반으로 브이라이브는 베트남과 한국 가수들이 함께 공연하는 음악 프로그램인 ‘V HEARTBEAT LIVE’를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브이라이브는 V HEARTBEAT를 통해 독점적 뮤직라이브 콘텐츠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차트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뮤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브이라이브는 베트남의 연예 정보와 한류 소식 등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소개하고 베트남어와 글로벌 영문서비스로 제공해 이용자 층을 더욱 확대한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엠은 영상사업에 투자를 강화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카카오엠은 지난달 연예매니지먼트사 3곳, 국내 1위 글로벌 광고모델 캐스팅 에이전시와의 전

략적 지분투자과 파트너십 등 협업 체제를 구축했다. 한류스타 배우군 확보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빠른 시간 내 K콘텐츠 1위 사업자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또한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스타 배우 군단을 확보함에 따라 영상산업 전 분야에 걸쳐 밸류체인을 형성하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내 광고모델 캐스팅 1위 사업자 레디엔터테인먼트의 중국법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배우들의 전략적인 글로벌 진출을 통한 수익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영향력 확장을 지원한다.

이후 모회사 카카오가 보유한 슈퍼IP(지적재산권), 탄탄한 스타급 작가와 감독 영업 등을 토대로 제작시스템을 완성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겨냥한 밸류체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회사 및 파트너기업들과 시너지를 강화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서울 중구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기가지니 데브 콘퍼런스 2018’에서 공모전 수상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KT, ‘AI 시대’ 주제 개발자 콘퍼런스 개최

KT는 인공지능(AI) 개발자 행사인 ‘기가지니 데브 콘퍼런스 2018’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융합기술원 이동면 사장, 마케팅부장 이필재 부사장 등 KT의 AI와 관련된 주요 임직원과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제휴사 서비스 기획자, 개발담당자, 관련전공 학생 등 300여명도 참가했다.

‘AI 시대, 새로운 서비스의 탄생’을 주

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엔비디아 아코리아 유은준 대표의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서 KT 융합기술원 AI 테크센터 김진한 센터장 등 KT 임직원이 KT AI 에코시스템 확산 전략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케이뱅크와 롯데닷컴, 메트로랩 등 분야별 기가지니 제휴사 개발 담당자 사례 발표를 통해 AI 서비스 기획과 개발 시 유의사항에 대한 노하우 공유도 이뤄졌다.

〈양성문 기자 catchrod@〉

멜론 달리는 속도 맞춰 음악재생 ‘멜론 스포츠’

국내 대표 뮤직플랫폼 멜론(Melon)은 운동할 때 러닝 속도에 따라 음악을 자동 재생해주는 9개 운동 종목별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는 스포츠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 ‘멜론스포츠’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멜론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재생 기능이다. 메인화면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센서가 작동해 이용자의 러닝 속

도(km/h)에 최적화된 템포의 음악을 자동으로 재생한다. 여기에 운동 속도와 시간, 소모 칼로리까지 표시해줘 나만의 운동파트너로서 목표를 향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운동 테마’에서는 크로스핏, 웨이트, 자전거, 복싱, 요가 등 총 9개의 종목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해 운동의 즐거움을 더한다. 또한, ‘내 플랜’에서는 다이

아트, 복근 만들기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 목표와 함께 달성 기간과 운동시간을 입력해 체계적인 운동습관을 만들 수 있다. 운동이 끝나면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록을 통해 운동 중 들었던 곡 목록까지 함께 관리 가능하다.

멜론스포츠는 멜론 안드로이드 앱 4.7 버전과 iOS 앱 4.6으로 업데이트 후 더보기-멜론스포츠 탭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멜론은 멜론스포츠 오픈을 기념한 8월 3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서윤 기자

쏘카 자율주행 연구 스타트업에 투자

“종합 모빌리티 지향”

차량공유업체 쏘카가 자율주행 연구 스타트업 라이드플릭스에 투자를 단행했다. 이번 투자는 종합 모빌리티를 지향하는 쏘카의 첫 투자 사례다.

11일 쏘카에 따르면 라이드플릭스는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인 박종희 박사와 윤호 박사가 공동창업자로 이끄는 연구 전문 스타트업으로, 세계적인 자율주행 기업 누토노미의 창업자인 칼 아그네

마 박사가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있다. 누토노미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2016년 세계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인 바 있다.

쏘카는 이번 투자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필수 요6월 가계대출소인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 또 대규모 상용화가 가능한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로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양성문 기자 ysw@〉